

국내 중형차 시장 다시 살아나나

기아자동차의 신형 K5와 2016년형 쏘나타가 하반기에 잇따라 출시되면서 전체였던 국내 중형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의 중형차 내수 판매는 지난달 총 1만8624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16.8%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국내 시장에서 중형차 판매는 2010년부터 레저용 차량(RV), 그중에서도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에 밀려 고전해 왔다. 2010년 평균 25.8%였던 중형차 판매 비중은 매년 하락을 거듭한 끝에 올해 4월에는 14.7%까지 떨어졌다. 반면에 RV는 2010년 20.8%에서 올해 41.1%로 상승곡선을

신형 K5·2016년형 쏘나타 하반기 잇따라 출시

지난달 내수 판매량 1만8624대...올들어 최고치

그려 대조를 보였다.

중형차 판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14.9%에서 16.3% 사이에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평균치인 17.0%에 육박했다. 이는 2세대 신형 K5와 2016년형 쏘나타 등 중형 신차의 출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K5는 지난달 6447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10위권에 8위로 진입했다. 이

중 신형 K5는 출시 1주일 만에 4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K5 판매실적을 이끌었다. 1.7 디젤,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신형 모델로 라인업을 확대한 2016년형 쏘나타의 출시도 중형차 비중 확대에 기여했다. 쏘나타는 7월 한 달간 8380대가 판매돼 베스트셀링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GM의 말리부도 지난 6월에 비해 23.6% 늘어난 1695대가 판매됐고 르노삼

성의 SM5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한 599대가 팔렸다. 중형차의 약진은 하반기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5의 계약대수가 6월 말부터 진행된 사전 계약을 포함해 지난달 말까지 총 1만 1000여 대를 기록한데다 8월부터 판매가 본격화되면 중형차 판매 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과거 중형차는 한국 자동차시장을 이끌었던 대표 차종이었다"며 "신형 K5와 2016년형 쏘나타가 출시된 이후 수입 디젤차, RV로 향하던 고객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어 하반기에 중형차의 부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신형 K5



현대차 2016년형 쏘나타

‘정의선 차’ 모하비 내년초까지 생산 중단

유로6 모델 내년 초 출시

베라크루즈 이달 말 단종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기아자동차 사장 시절 만든 차여서 일명 ‘정의선 차’로 불리는 모하비(사진)가 내년 초까지 생산이 중단된다. 모하비와 더불어 현대·기아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이끌었던 베라크루즈도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까지 생산을 끄는 SUV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모하비와 베라크루즈의 생산을 이달 말에 일제히 중단하고 대대적인 라인업 재정비에 나선다. 모하비와 베라크루즈는 이달 말까지 생산분에 대한 계약이 이미 끝났다. 고객으로선 이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셈이다.

모하비의 생산 중단은 오는 9월부터 기존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

6 환경 기준을 적용한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생산이 일시 중단된다.

모하비의 생산 중단은 기아차로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모하비는 그동안 연식 변경만 있었을 뿐 단 한 차례 완전 변경 모델도 없었던 1세대 모델이지만 출시 첫해보다 올해 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누적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4165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1041대가 팔린 셈이다. 모하비의 월평균 판매대수가 1000대를 넘어

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모하비는 출시 첫해에는 8899대가 팔렸으나 이듬해인 2009년 6428대, 2010년에는 5651대까지 줄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반등해 지난해에는 1만581대까지 늘었다. 월평균 판매대수도 2008년 742대에서 2010년에는 471대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882대로 회복됐다. 모하비는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 사장 시절 모하비를 직접 타고 다닐 정도로 공을 들인 모델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차 계약취소 전액환불 가능” 법원, 원고 승소 판결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타고 다녔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0년 11월 29일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에게 차값 4150만원과 등록비 250만원을 합쳐 44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넘겨받았다. B씨는 이 차량이 그해 9월21일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된 뒤 제3자인 C씨에게 넘겨졌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씨는 자신도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차의 원래 소유자는 차량 침수로 보험금 3790만원을 수령한 뒤 그해 10월14일 C씨에게 매각했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B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거래 대금 44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수출차엔 더 좋은 에어백?

현대차 적극 해명 나서

어드밴스드 에어백 부작

유아·여성 보호기능 필수

북미지역 의무 기준 때문

현대자동차가 수출용 차량에만 더 좋은 에어백을 달고 있다는 오해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수출용 차량 강판이 내수용보다 두껍게 만든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현대자동차는 수출용 차량에 더 좋은 에어백을 장착한다’라는 제목으로 현대차의 에어백 제작 및 적용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란 미국 내 정면 충돌 보호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에어백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황을 포함해 유아 및 왜소 여성까지 일정 수준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특화 에어백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밖에 없다.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조차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미국과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다른 에어백보다 성능이 우수할까.

현대차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다른 에어백 시스템보다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에 방점을 두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디파워드 에어백과 사실상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 정면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 그랜저는 16점 만점 중 15.9점을 받았지만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한 수입차는 15.3점으로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일도 있다.

특정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의 승객이 ‘더 안전하다’를 단정지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차와 더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적용하는 디파워드 에어백과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자체 테스트한 결과 상호 동등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그래도 내수용 차량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하는 게 좋지 않으나’는 의견에 대해 제조사 입장에서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BMW, 벤츠 등 수입차들은 국내 판매용 차량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오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용 차량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다 보니 일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구비된 것 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입차 메이커 모두 국내 판매용 차량에는 디파워드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으며 북미로 수출되는 제품에만 현대차를 포함해 수입차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엔진오일 교체주기 레벨게이지로 확인 가능

Q)엔진오일 게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보통 5000~1만km 혹은 6개월 정도를 오일 교체 주기로 봅니다. 이는 엔진 오일 게이지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면, ▲차를 평탄한 곳에 주차 후 정상작동 온도까지 엔진을 워밍업 합니다. ▲엔진시동을 끄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낸 후 다시 레벨게이지를 꼽습니다. ▲다시 한번 레벨게이지를 뽑으면 엔진오일의 양이 게이지에 찍혀 나오게 됩니다. 오일의 선이 게이지에 표시된 F와 L 사이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F를 넘어가면 오일을 빼내야 하고, L 밑에 있으면 새로 넣어줘야 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융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 | | |
|--|---|
|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상업지건물 7층상가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 ⑤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
|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
| ④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2~5층 사무나, 주택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용 6억)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010-7384-7800 / 010-6670-9800